



어머니의 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 센터에서 <이소선 5주기전: 어머니의 대지>가 열렸습니다. 한평생을 1천만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살다간 故 이소선 여사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김정현, 정정엽, 임옥상, 신학철, 박영균, 박은태 등 26인(팀)의 예술가들은 각각의 예술언어로 창작한 이소선과 전태일 관련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예술가들은 노동, 인권, 민주, 여성 의제를 회화, 사진, 판화, 입체,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전태일재단의 도움으로 일부 작품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이소선 5주기전 어머니의 대지



이원석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은 작가의 신작으로 이소선 여사의 반신상이다. 팔을 벌리고 환한 웃음으로 전시장을 방문한 이들을 맞이했다.

김정현
어머니의 달

민중미술가로, 1990년 현장 결개그림부터 이소선 여사를 달에 비춘 회화까지 모두 네 점을 선보였다.





정정엽

이소선-노동자의 어머니

80년대 후반 투쟁현장 등에 이용했던 판화와 올해 새로 제작한 전태일, 이소선의 초상 회화를 동시에 선보였다.



정정엽

전태일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는 화폭 속에서 재구성되어 그들이 남긴 메시지와 함께 긴 여운을 준다.